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6. 1.(화) 배포</p>	
---	--	---

보도일 2021. 6. 2.(수) 브리핑 시(09:5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2.(수) 브리핑 시(09:50)부터 보도 가능

담 당 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	교육연구관 양서윤 (☎ 044-203-6523)	교육연구사 김상민 (☎ 044-203-6522)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 (☎ 044-203-6471)	
		학교정책과	과장 장홍재	사무관 양수경 (☎ 044-203-6450)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교육연구관 윤강우 (☎ 044-203-699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김희경	실장 이재봉 (☎ 043-931-0468)	팀장 구남욱 (☎ 043-931-0407)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 ◆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 생활 행복도 등 전년 대비 낮은 경향 확인
- ◆ 학습결손 극복을 위해 교육회복의 관점과 3대 대응원칙(종합성적시정책무성) 제시
- 6월 말, 「(가칭) 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마련
- ◆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 전국 직업계고 등교 확대 및 6월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 ◆ 컴퓨터 기반 역량중심 평가(CBT) 도입 및 학생 맞춤형 정보 제공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2일(수)에 발표했다.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 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시행일) 고2 2020. 11. 25.(수), 중3 2020. 11. 26.(목) ○ (평가 대상) 전체 학생(중3·고2 학생 총 771,563명)의 약 3%, 21,179명(424개교) ※ (표집대상교) 중학교, 일반고(직업반 제외), 특목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제외), 자율고 및 특성화고(대안계열) ○ (영역) 교과 국수영(중학교 사과, 1.5% 표집), 설문 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 ○ (성취수준)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2019) → 4, 3, 2, 1 수준(2020~)

-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미 실시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준비단을 구성하며, 6월 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6.2)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및 1학기 등교학생 추가 확대 계획 발표
 (6월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예정
 (6월 하순) 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구체 내용 및 예산 등 발표 예정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하였다.
 - 1수준(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구분 연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20	75.4 (0.76)	57.7 (1.01)	63.9 (1.1)	69.8 (1.14)	60.8 (1.27)	76.7 (1.07)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는 전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중학교 (59.5%)는 4.9%p, 고등학교(61.2%)는 3.5%p 감소하였다.

【 2013 ~ 2020년 학교생활 행복도 '높음' 비율(%) 】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중·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학생 설문을 실시하였다.

- 중·고등학교 모두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교사의 지도 및 학교 친구와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 비율(%) 】

학년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응답 비율
중3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기분이 든다	4.7	10.8	54.3	30.2	84.5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습한다는 기분이 든다	9.5	17.9	46.2	26.5	72.7
고2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기분이 든다	5.2	12.4	55.4	27.0	82.4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학습한다는 기분이 든다	10.6	18.4	46.0	25.1	71.1

- 원격수업 유형 중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영상'으로 나타났다.

【 원격수업 유형별 유용성 비율(%) 】

학교급	과목	설문 내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긍정 응답
중3	국어	실시간 쌍방향 중심	13.7	24.6	49.5	12.2	61.7
		교사 제작 영상 중심	6.5	15.0	59.6	18.9	78.5
		외부 수업 영상 중심	11.5	23.9	52.5	12.1	64.6
		과제 수행 중심	15.7	28.3	46.2	9.7	55.9

※ 중 수학, 영어 및 고교 전과목 원격수업 유형별 유용성 비율은 [별첨] 13쪽 참고

-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2021.4.),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 및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적응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교생활 행복도 및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하락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 또한 누적된 결손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등 비인지적 정보를 포함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추진

-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등으로 학습·정서 등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 * 2020년 세계 학생의 91%(188개국, 약 15억 명, 2020上)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88%가 3개월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하지 못함. 한국도 2020년 등교일수는 평년(190일)의 50% 내외로 감소했음
 - * 2020년 전국 평균 등교일수: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정서 등 결손은 단기적으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는 사회·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 3% 하락, 국가 국내 총생산(GDP)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
 -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면 수업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전면 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등의 학습보완뿐만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 등 결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 및 3대 원칙’을 수립하였다.

대응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

- ① **[종합성]**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 ② **[적시성]**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한다.
- ③ **[책무성]**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국가경쟁력의 토대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추진]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5월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의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체계적인 교육 회복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하였다.
 - 등교수업의 축소, 거리두기로 인한 학생 간 소통·유대감 등 정서와 사회성 함양 기회 부족 등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각종 결손에 대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목적을 둔다.
- 「(가칭)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은 ‘교육 회복’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종합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청, 국회 등과 협의 중이다.
 - ▲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활동, ▲ 취업·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학생에게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 특히,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교육 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동 종합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교육회복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가와 방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충지를 모아갈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실무협의체인 ‘교육 회복 추진 준비단’을 바로 발족하여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

- 등교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 세계 주요국 확진자 대비 낮은 수준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 등교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참고 : 등교 확대 관련 국제 현황 】

※ 미국: 9월 가을학기에 모든 학교 수업 정상화 의지 발표(연방교육부 장관, 5.7.)
 일본: 대면교육을 전제로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므로 원격교육은 신중해야(문부과학상)
 프랑스: 전면통제 기간에도 등교수업 유지한 것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자평(교육청소년부 장관)

국가	주간 평균 확진자(5.17. 기준)	등교 상황	전면 등교 여부
영국	2,274	전면 등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5.17~)	전체
프랑스	14,389	[초] 전면 등교 [중고] 등교·원격 (중 3~4학년 지역별 상이)	[초], [중1~2] 전체 [중3~4] 50% 또는 전체, [고] 50%
독일	10,293	등교·원격(주별 상이)	70.53% (등교·원격 병행 포함)
일본	6,153	등교·원격(지역별 상이)	등교 원칙
미국	33,041	등교·원격(주별 상이)	초 65%, 중 58% (등교·원격 병행 포함)

□ 우선 6월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

- 현재 수도권 중학교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보다 등교율이 낮은 편* 이므로, 1학기 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기존 1β에서 2β로 상향 조정한다.

* 수도권 학교별 등교율 (초) 67.7%, (중) 48.3%, (고) 67.2%
비수도권 (초) 87.0%, (중) 80.9%, (고) 80.4% (5.26. 기준)

- 또한, 현장 실습 등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등교 유연화를 추진하며,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 이러한 조치는 학교의 방역 상황 점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등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고자 함이며, 6월 2일(수)부터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4일(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 이와 같은 단계적 등교 확대 추진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전문가, 방역 당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방역체계를 촘촘히 점검·보완하여

- 6월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진단 및 환류 체계 구축

□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칭)교육 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과 더불어,

- 학생 성장을 진단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애 누적 결손을 조사하여 증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 2022년 9월부터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i성취)'을 구축·운영한다.
 - 이는 기존 중3·고2 학생의 3%를 표집하여 지정일에 지필 평가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한 것이다.
 - 실제 맥락에서의 문제해결력 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술공학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 (Computer Based Test)를 도입(2022.9.~)하고
 - * (문항 예시)▲정보활용형, ▲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
 - ※ 향후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는 컴퓨터 적응형 평가 (Computerized Adaptive Test)로 전환 추진(2024.下~)
 -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상세 정보(예시) 】

현재	신규 제공(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 • 교과역량별 성취율 • 교과별 정의적 특성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역량[공동체 의식, 협업, 갈등해결] ('22년~) • 정서적 역량[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 ('22년~) • 진로성숙도[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23년~) • 자기조절학습[자기효능감, 행동통제, 학습전략] ('23년~) •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23년~)

- 또한,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원하는 평가 시기 및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년(초3~고2)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대표성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발표를 위해 기존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하는 3% 표집평가는 유지한다.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생들의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를 실시한다.

- 초3·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정서 발달 및 신체 건강에 대해 2021년부터 3년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한다.

【 사업 유형 】

구분	복합형(경기교육청)	도시형(대구교육청)	성장형(충북교육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도농복합, 다문화 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 단위 ■대도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단위 ■중소도시, 농어촌 특성 등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장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중장기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연차별 추진 계획(안) 】

1주기 조사			2주기 조사 4차 연도 이후 (2024~)
1차 연도(2021)	2차 연도(2022)	3차 연도(2023)	
[기초 설계 및 조사]	[2차 조사 및 분석]	[3차 조사 및 1주기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단기초 설계 및 조사 실시(5월~) ※ 2차 연도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패널 확대 및 2차 연도 조사 ※ 3차 연도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연도 조사 및 2주기 조사 검토·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연도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연도 비교 분석 및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기 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맞춤형 지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역량의 차이이다.”라고 설명하며,

- “올해 초부터 교육청과 검토해왔던 수도권 중학생들과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의 등교를 6월 14일부터 확대하여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단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역량평가(CBT)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좀 더 긴 안목으로, 학습결손의 문제는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별첨】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 기술을 도입한 역량 중심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 도입

① (역량 중심 평가) 실제 맥락에서의 문제해결력과 정보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등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도입('22.9월~)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성취)」 구축·운영

※ PISA, 미국 학업성취도 평가(NAEP), 캐나다 Foundation Skills Assessment 등 교과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협력적 문제해결력, ICT 소양 등 강조

※ 향후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는 컴퓨터 적응형 평가(Computerized Adaptive Test)로 전환하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2024.下~)

② (컴퓨터 기반 문항) '실제 맥락에서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 문항* 개발('21년~)

* ▲정보활용형, ▲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문항(예시)

■ 주어진 상황을 탐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 해결 →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험 과정에서 도구 활용 시간 및 경로 등이 기록되어 지식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평가 가능

☞ 기존 지필평가의 도구 준비 문제, 수험 환경에서의 실제 활동 평가에 대한 어려움 해결 가능

[19-1 ~ 19-2]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십시오.

다음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안내
니크롬선X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구성한 후, 스위치를 닫고 전원 장치 전압을 증가시키며 전압계와 전류계의 눈금을 읽는다. 니크롬선X를 니크롬선Y로 바꾸어 과정을 반복한다.

19-1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니크롬선X에 걸리는 전압이 커짐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는 $X > Y$ 이다.
- 전압이 일정할 때 니크롬선의 저항이 크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을 위한 출제 방안 연구

□ 모든 학년 대상 자율평가 지원

① (자율평가) 표집학교(급) 외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도 평가기간* (학년 초·중·말) 중 자율적으로 평가 참여, 환류 정보 제공('22.9월~)

* (예) 학년 초(3월), 학년 중(7~9월), 학년 말(12~1월)

- 단, 대표성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를 위해 중3, 고2 대상으로 시행하는 표집평가(3%)는 유지

② (대상 확대) 평가 지원 대상 학년(초3~고2)을 연차적으로 확대(~'24년) 하여 교육과정 성취수준 점검 등을 위한 자율평가 지원 강화

※ 초3·4의 경우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2단계(1·2 수준)로 결과가 산출되며 시험지 형태로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구성('24년~)

【 평가 지원 학년 연차별 확대(안) 】



□ 인지적·비인지적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제공 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개별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학생 성장 맞춤형 상세 정보 제공

【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상세 정보(예시) 】

현재	신규 제공('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 교과역량별 성취율 교과별 정의적 특성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역량[공동체 의식, 협업, 갈등해결] ('22년~) 정서적 역량[스트레스 대처, 회복탄력성] ('22년~) 진로성숙도[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23년~) 자기조절학습[자기효능감, 행동통제, 학습전략] ('23년~) 성취목표지향성[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23년~)

【참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전후 비교

구분	이전	향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사회·정서적 영역 등)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및 환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교육과정 점검 개선을 위한 상세 정보 확보·활용
대상 ·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3, 고2 학생의 표집 3% 6월 셋째주(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3~고2 단계적 확대 ※ 중3, 고2 3% 표집 유지 연중 3회(학년 초·중·말 중 자율 선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기반 평가 → 컴퓨터 적응형 평가
결과 분석 ·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집 학생의 개별 학업성취도 제공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기반 정의적 영역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학생의 개별 학업 성취도 및 교과 역량별 성취수준 등 제공 (초3, 4학년은 성취수준 2단계)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기반 정의적 영역 외 교육맥락 변인, 사회·정서적 역량 등 제공
국가수준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3, 고2(3%)의 학업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3, 고2(3%)의 학업성취도